2025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지역사회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광주광역시 광산구새마을회가 2025년 11월 21일 새로 조성된 광산구청 시민광장 잔디밭에서 "2025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광산구청(박병규 구청장)이 주최하고 광산구 이마트가 후원하여 광산구새마을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담근 김치 1,600kg은 관내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한 부모 가족, 다문화 및 고려인 가정 250가구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고. 이번 행사는 지역복지 공동체 운동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주광산구새마을회 안덕홍회장은 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히며, 담근 김치 1,600kg이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한 부모 및 다문화 가정 250가구에 전달되어 추운 겨울에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김준행 명예회장은 시민광장 잔디밭 사용을 승인해 주신 광산구청에 감사를 전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복지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봉사에 더욱 힘쓸 뜻을 밝혀 주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새마을부녀회(백영실부녀회장)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유희권협의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치를 받으신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광산구새마을회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값진 행사로,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새마을회 김장담그기 행사장에 격려 방문한 광주시새마을회 류재신 회장은 새마을운동정신을 지역사회를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새마을회가 되자고 말하며, 광산구새마을회가 모범적으로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고 격려 했다.

함께 방문한 광주시새마을부녀회 김용희부녀회장은 이웃사랑 나눔봉사를 실천하는 광산구새마을부녀회가 자랑스럽다고 했으며, 광주시새마을회 이상명 처장은 앞서가는 광산구새마을회라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하는 자랑스런 광산구새마을회라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산구새마을회원들과 다문화 가족 등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지역복지 공동체 운동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복지 공동체 운동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광산구새마을회의 노고 덕분에 이웃사랑이 더욱 빛난 행사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나눔과 봉사가 지역 사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길 응원한다.

/오덕근 기자

광주은행, 창립 57주년 기념 백미 570포대 후원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소외계층에 따뜻한 온기 전해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창립 57주년을 맞아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 '해뜨는 식당(대표 김윤경)'과 광주·전남 사회복지 시설 33곳에 백미 총 570포대를 전달하며 따뜻한 지역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백미는 해뜨는 식당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배분되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예정이다.

'해뜨는 식당'은 2010년 개업 이후 15년간 단 한 차례의 가격 인상도 없이 1,000원 백반을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식사가 되어온 곳으로, 지역 내 나눔 공동체의 상징적 공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광주은행은 이번 후원을 통해 식당이 이어온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광주은행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며, "창립 57주년을 맞아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 강진 청자장 이용희 선생 수상
고려청자 발굴과 계승에 평생 바친 공로 인정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7회 대동전통문화대상 수상자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 청자장 이용희 선생이 선정됐다.

이 대회는 문화유산·미술·공연 3개 부문으로 나눠 경쟁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한달 간 수상 후보자를 공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중 문화유산 부문에서 강진의 이용희 청자장은 고려청자 발굴과 계승에 평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용희 선생은 1964년 강진 고려청자 요지 발굴 조사에 참여한 이후 1977년 고려청자재현사업추진 위원회 이사 겸 간사로 청자의 재현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1986년부터 고려청자박물관의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 청자장(青瓷匠)에 지정돼 청자제작 기술 전승에 힘써왔고, 현재 강진 청자촌에서 두 아들과 함께 동흔요를 운영하면서 청자기술 전승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강진 사당리 자택 일원이 고려청자요지의 중심지역임을 알고 흔쾌히 거주지를 이전해 발굴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고려청자 제작 공방 시설물이 확인돼 청자문화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한 공로가 크다.

대회는 대상, 특별상을 포함한 14명으로 총 상금 3,300만원과 일체 경비를 전액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해 더욱 의미가 컸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청자를 상징하는 이용희 선생의 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평생을 강진청자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강진청자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2월17일 오후 7시 광주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대동문화 예술축전과 함께 열린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사랑 愛 김장김치 나눔행사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1월 21일, '2025년 사랑 愛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공동체 정신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돌봄의 마음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15개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절인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정성껏 김치를 담갔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김장김치 300포기는 지역아동센터 20개소와 공동생활가정 4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홀몸 어르신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 주신 여성단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호순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장김치 나눔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함평로타리클럽, 이웃에 온기 전해… 연탄 나눔 봉사 성료

전남 함평로타리클럽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모여 따뜻한 연대의 빛을 발하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24일 "국제로타리3710지구 함평로타리클럽(회장 고영한)이 지난 22일 동절기를 맞아 함평군 관내 10가구에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광주 초아의 봉사단과 함평고등학교 인터랙트 클럽 등 70여 명의 봉사자도 참여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 밖에도 함평로타리클럽은 1974년 설립 이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해복구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현재 63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고영한 함평로타리클럽 회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국가유공자 가구에 '나비활동' 정리 지원
수납·공간 개선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0일 충장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이자 90대 독거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동구형 유품 정리사업 나비(나눔과 비움) 활동'을 실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나비 활동'은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 장례학 개론 등 체계적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이 '나비 활동가'로 참여해 정리 수납이 필요한 1인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복지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생전 소유물 정리 수납 ▲사후 특수청소 ▲찾아가는 고독사 인식 개선 교육 등으로 구성된 '동구형 유품 정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관내 13개 행정동 마을사랑채에서 주민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활동에서는 정리·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어르신을 위해 오래되고 낡은 물품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대형 책상과 생활용품은 충장동의 협조를 받아 폐기 처리했다. 어르신이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동선을 고려해 맞춤형 정리 방식을 적용,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정돈된 공간을 확인한 어르신은 "혼자 치울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니 새집으로 이사 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오철수 기자